

“문화분권, 지역 고유성 살린 문화자치로 가야”

광역문화재단연합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정책’ 포럼 “지역 공동체 정신과 문화교육 등 매개로 사회적 포용 견인”

지역문화 분권은 장기적으로 문화정책, 행정, 계획 등에서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자치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문화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정책이 핵심 사안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계획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주장은 광주문화재단이 최근 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개최한 2019년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정책’ 포럼에서 나왔다.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은 ‘문화자치를 위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라는 발제문에서 ‘문화비전 2030과 지역문화분권 실현’의 방향성 등을 거론했다. 손 팀장은 “문화분권정책이 실질적 문화자치로 가려면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고유한

문화정책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질적 문화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구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이라는 위계질서 속의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문화재단의 규모와 배분, 활용 방식 등에 있어 실질적인 문화분권 수준에 맞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주요한 지역문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는 의사구조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사회 모든 분야 자원이 수도권에 편중된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와 문화정책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비전 2030과 광역문화재단의 정책과

제’ 토론문에서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불가능한 협 상황에서 단순 사업 대행기관이 아닌 최소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독립적인 예산과 사업집행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의 노력만으로 확보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이상 문화정책 추진 방식의 제고와 아울러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주체들의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자치 측면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기관들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추진 과정은 중앙주도형에서 공동주도형식의 지역협력형으로 변모했다. 앞으로는 지방이양과 함께 지역주도형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박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본부장은 발제문에서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역문화재단과의 역할 정립과 더불어 발전적인 협력체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문화재단의 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차

재근 문체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발제문 ‘사회적 가치실현과 문화재단의 경영혁신’에서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다원주의 등 재단 방향성 재설정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미래 문명권 태동지로의 문화도시 주도, 문화적 재생·문화도시 등 법적 사업 구상, 혁신적 재산 운용과 문화공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만우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문화정책 제안의 다양한 의견 발굴 그리고 재단 대표의 리더십 확보 등 여러 현안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재규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은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주체로서의 광역문화재단 역할’에 대해 “신뢰와 포용을 정책 목표로 지역의 공동체 정신이 문화교육, 문화복지, 문화환경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포용을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근로정신대’ 다룬 문병란 미공개 시 발견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근로정신대 할머니 시민모임 창립 10주년 총회 자료집 실려



명이다. 안영숙근로정신대시민모임공동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모임이 금주 회장(전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회장)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 발견했고, 이번에 스캔해 자료집 권두에 게재했다는 것이다.

“통곡의 바다/ 회한의 바다/ 피와 눈물의 바다/ 오늘 그 바다 위로/ 사랑과 사죄의 잡화를 입고 오는/ 인간 평화사절단/ 우치카와 변호사/ 다카하시 선생/ 원한을 넘어/ 오늘 마침내 우레와 손을 잡는다.// 사람은 천부의 그 인권으로/ 오로지 평등하고 아름다운 것/ 국경을 넘어 이념을 넘어/ 서로 겨안을 뽀/ 뜨거운 피땀을 무는고/ 원수의 가슴에도/ 얼음 녹듯 인정은 꽃피어간다.”

문병란 시인은 작품에서 우리의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돕는 이들 일본의 양심세력(나고야지원단회)이 ‘마침내 우리와 손을 잡는’ 의미를 되새겼다.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한일시민연대에는 아무런 차별도 조건도 존재하지 않으며 평등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음을 묘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민중운동에 헌신했던 문병란(사진) 시인(1935~2015)의 미공개 시가 발견돼 눈길을 끈다.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라는 작품이 최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창립 10주년 정기총회 자료집에 실렸다. 부제는 ‘근로정신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한국어판 간행에 부치는 기념시.’

이 같은 사실은 문병란 시인을 연구하고 외국어로 번역해 소개해온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에 의해 밝혀졌다.

김 교수가 시인의 시를 접한 것은 최근 광주시청 1층에서 진행된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10주년 정기총회’에서다. 현장에서 자료집에 스캔돼 실린 시인의 작품을 우연히 보게 됐다고 한다. 이 작품은 문병란 시인이 2000년 근로정신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한국어판 간행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낭송한 작품이다.

김 교수는 자료집에서 필체를 확인하고 시인의 작품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전에 문병란 시인의 자필시집 ‘법성포 여자’를 펼쳐보며 연구한 적이 있어 고인의 필체임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

여성 일자리·안전·성평등 정책 발굴 활성화

광주여성재단 사업계획 발표



지난해 12월 열린 ‘광주여성문화회관’ 중 ‘성평등 정책 마켓’ 행사. <여성재단 제공>

광주여성재단은 지난 2011년 ‘광주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출범했다. 여성가족정책 연구, 지역여성네트워크 구축, 성평등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문화 공간 운영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염미봉(64)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는 18일 오전 광주시 동구 호남동 재단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주요사업 실적과 올해 경영목표·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은 20억6400만원으로 25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연구·조사를 통한 ‘성평등 정책 개발’이다. 올해 광주지역 아동학대 실태와 젠더협오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낼 예정이다. 오는 8월까지 여성고용 실태조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여성공공형 일자리 확대 방안을 위한 연구를 오는 5월 착수한다.

특히 202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광주여성사 연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재단은 공모사업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고(故) 박기순(1958~1978) 열사의 평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타지역과 협업해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여성을 조명하는 전시를

기획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올해는 광주센터포럼을 주축으로 한 여성 관계망도 확대한다. 여성가족정책의 발굴을 목표로 하는 광주센터포럼에는 정치·경제·시민단체 등 11개 분과로 나눠 5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해외 인사를 초청한 국제포럼도 기획하고 있다. 217개에 달하는 광주지역 여성 소모임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재단 창립 이래 숙원사업이었던 ‘광주여성문화회관’에 대한 필요성 연구도 진행된다. 서울여성플라자·전남여성플라자 등 8개 주요 지자체에서 관련 공간이 마련

된 만큼 재단도 공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외 5회에 걸쳐 열리는 성평등 전시와 성인지 교육, 젠더 아카데미, 성인지 예산 중점과제 모니터링 등 기존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재단 측은 밝혔다.

염미봉 대표는 “5·18 40주년에 맞춰 광주여성사를 발굴하고 여성일자리·안전·육아·휴식 부문 등 광주지역의 취약한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 정책 발굴·제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문화전당 일일진로체험 ‘커리어 러너’ 참여자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관련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커리어 러너’ 참여자를 모집한다.

‘커리어 러너(Career Runner & Learner)’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청소년 진로체험활동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이 주최, 아시아문화원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커리어 러너’는 ACC 라이브러리파크 내에서 학생들이 달리면서 배우는 디지털 진로 체험이다. 지난 2016년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2만 명 학생들이 체험을 했으며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문화전당 내 다양한 콘텐츠를 토대로 아시아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큐레이터, 아카이비스트, 에듀케이터 등 관련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적극적인 신체 활동과 모뎀별 학습활동을 통한 협업과 소통을 배울 수 있다.

오는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일일진로체험 프로그램 ‘커리어 러너’는 30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부 진로체험지원센터 ‘꿈길’(www.ggoomgil.go.kr)을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1899-55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군자 한시가 피워내는 그윽한 향

김대현 전남대 교수 ‘사군자 한시선’ 펴내



정지상, 이규보, 서거정, 김시습, 이항, 김인후, 윤선도, 정약용...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시대를 초월해 감동을 주는 한시를 썼던 문인들이다. 특히 이들의 한시가운데는 사군자를 소재로 한 작품이 적지 않다.

전남대 김대현 교수(국어국문과)가 ‘사군자 한시선’을 펴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한문문집에 있는 사군자(四君子) 한시만을 모아 번역한 책으로 약 100여 명의 한시 작품 120여 수가 실려 있다.

사실 예로부터 문인들은 글과 그림에 사군자를 많이 표현했다. 그러나 모두 옛한문 문집 등에 흩어져 있어, 사군자 한시만을 수록한 한시 시선집이 귀하게 다가온다.

책에는 앞서 언급한 문인들의 작품 외에도 정조대왕, 김정희, 조희룡 등 유명

문인들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또한 근대의 오세창, 한용운 선생이나 한국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의 사군자 시도 만날 수 있다.

이들 작품은 하나같이 사군자로 명명되는 것에서 보듯, 사군자가 지니는 특성을 삶과 비유한 한시들이다.

겨울 찬바람을 뚫고 피어나는 매화, 깊은 산중에 아름답게 피어난 난초, 늦가을 추위에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국화, 사시 사철 기개를 잃지 않는 푸른 대나무 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이여기해준다.

한편 40여 년 한국 한문학을 공부해온 김대현 교수는 한시 작품들을 쉽게 번역 편찬해 주제별 시선집으로 묶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